



디아스포라적 문화접변과 동반성장에 관한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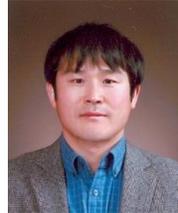
- 일본 오사카지역 재일코리안을 중심으로 -



임 채 완

(전남대학교)

(cwlim@chonnam.ac.kr)



선 봉 규

(전남대학교)

(polisun@hanmail.net)

국문요약

이 연구는 모국(homeland)을 떠난 디아스포라가 거주국(host country)에서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문화접변 양상과 디아스포라가 거주국 지역사회의 성장에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일본 오사카 이쿠노쿠(生野區)에 거주하고 있는 재일코리안 디아스포라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경험하고 있는 문화접변 현상과 그 과정에서 지역사회와 어떻게 상호 공생하고 발전하는가를 살펴보았다.

일본 오사카 이쿠노쿠에 거주하고 있는 재일코리안 디아스포라는 다인종, 다문화시대에 진입하고 있는 한국사회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무엇보다 오늘날 디아스포라는 단순히 지역사회의 한 구성원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성장과 발전에 필요한 새로운 에너지를 창조하는 적극적인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공존, 공생의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정부 및 지자체를 비롯하여 지역사회를 구성하는 주체들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다인종, 다문화시대에 어느 일방에 의한 문화접변은 불필요한 갈등을 야기하여 사회적 혼란 및 비용을 증가시킨다는 점에서 이를 경계해야 할 것이다. 다인종, 다문화시대에 진입한 한국사회는 사회 곳곳에 산재하여 존재하는

* 이 논문은 2014년 10월 2일 개최된 <2014 아시아 문화포럼>에서 발표된 내용을 수정 보완한 것임.

**이 논문은 2010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인문사회연구역량강화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0-413-2013S1A5B8A01055017).

다양한 이문화의 원형들을 발굴하고, 이주민문화와 주류문화 간의 교류를 통해 문화적 차이를 인정하고 체험하는 프로그램을 추진해야 한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이러한 사업들이 하나의 관광 상품으로만 여겨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참여하고 공유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아울러 다인종, 다문화시대에 디아스포라가 단지 낯선 이방인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동반성장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존재임을 바로 인식해야 할 것이다.

주제어 : 디아스포라, 문화접변, 동반성장, 재일코리안, 미유키도오리 코리아타운

I. 서론

국제이주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2013)의 『2013년 국제 이주 보고서』에 따르면, 국제이주자는 2억 3천 2백만 명에 이르고 있다. 이주의 송출국을 보면, 전통적으로 남쪽의 후진국에서 잘 사는 북쪽의 선진국으로 이주가 진행되었는데, 최근에는 북쪽의 선진국에서 남쪽의 후진국으로 이주하는 유형도 나타나고 있다.¹⁾ 이처럼 오늘날 이주는 ‘21세기 메가트렌드(Megatrends)’라 부를 정도로 지구적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²⁾

이주는 단순히 한 인간의 이동, 즉 국경을 넘는 행위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여기에는 한 인간의 문화 및 생활양식이 새로운 정착국에 유입되는 것까지 포함된다. 나아가 이주자는 정착국의 새로운 문화를 습득해야 하는 과정을 겪게 된다. 이렇게 한 인간의 이주는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끼리 접촉, 교류하게 되면서 다양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러한 현상을 탐구하는 중요한 개념이 바로 ‘문화접변(acculturation)’이다.

문화접변 연구의 주요 대상자는 정착국내에서 사회적 소수자로 살아가고 있는 이주민이

1) 전 세계 이주민 2억 3천 200만 명 중에서 남쪽에서 북쪽으로 이주하는 사람은 40%이며, 남쪽에서 남쪽으로 이주하는 사람은 33%, 북쪽에서 북쪽으로 이주하는 사람은 22%,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주하는 사람은 5%에 이른다(IOM 2013, 25).

2) 이러한 현상은 한국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한국거주 외국인 수는 1990년대 후반까지 주로 미군, 관광객, 산업연수생 등 38만여 명에 불과했는데, 2013년 6월 10일 현재 이주노동자, 국제결혼이민자, 귀화자 등 150만 명을 넘어섰다. 그 동안 비교적 단일민족의 전통을 잘 유지해온 한국사회는 이제 이주민이 국내 총인구의 3%를 차지하는 다인종,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연합뉴스 13/06/10).

다. 이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디아스포라(diaspora)라 할 수 있다. 디아스포라라는 용어는 그 동안 고대 그리스시대 그리스인들이 식민지로 이주하여 정주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되었으며(임채완 외 2006, 26), 유대인이 바빌론 유수(BC 586)에서 오랫동안 겪은 속박과 억압을 상징하는 것으로도 사용되었다.

그런데 최근에는 유대인 디아스포라의 바빌론에서의 경험을 재평가하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학자가 코헨(Cohen)이다.³⁾ 코헨(Cohen 1996, 509)은 디아스포라를 모국을 잃은 희생자(victims)에서 새로운 시각과 창조력을 지닌 도전자(challengers)로 재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유대인들은 모국이 아닌 바빌론에서 도전적(challenging)이고 다원적 상황(pluralistic context)의 경험을 ‘새로운 창조적 에너지(a new creative energy)’로 발전시켰다는 것이다. 코헨의 이러한 주장은 디아스포라가 더 이상 모국을 잃은 비극적인 실향민이 아니라, 다양한 경험을 통해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거나 모국 및 거주국의 성장에 기여하는 적극적인 주체로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이승호 외 2013, 211).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날 디아스포라는 다인종, 다문화 사회에서 중요한 행위자로 부상하고 있다.

이 연구는 모국(homeland)을 떠난 디아스포라가 거주국(host country)에서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문화접변 양상⁴⁾과 디아스포라가 거주국 지역사회의 성장에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일본 오사카 이쿠노쿠(生野區)⁵⁾에 거주하고 있는 재일코리안 디아스포라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경험하고 있는

3) 코헨(Cohen 1997, x)은 디아스포라의 유형화를 시도한 대표적인 학자이다. 그에 따르면, 디아스포라는 희생자(victim), 노동(labour), 무역(trade), 제국(imperial), 문화(cultural) 등 다섯 개로 유형화했다.

4) 디아스포라의 문화접변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정치, 군사적 지배관계에 있지 않은 서로 다른 문화가 상호 교류하는 과정에서 각각의 문화를 차용하거나 변화가 일어나는 유형이다. 이 유형에 해당되는 사례는 미국 남서부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나바호족(Navajo)인데, 그들은 18세기 스페인 식민주의자들의 의복과 금속세공술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그들 고유의 전통문화와 통합하는 전략을 사용했다. 다른 하나는 주로 정치, 군사적으로 지배할 때 나타나는 강제적 문화접변이다. 이 유형은 피지배세력의 문화가 지배세력의 문화에 거의 동화되는 현상으로, 고대 로마제국이나 유럽의 아프리카 및 아시아로의 팽창 과정에서 생겨난 수많은 식민지 국가에서 나타난다. 브리태니커 홈페이지(<http://preview.britannica.co.kr>, 검색일: 2014/08/25).

5) 오사카 이쿠노쿠는 오사카시에서 외국인 등록자가 가장 많은 곳으로 인구는 총 13만여 명이 넘으며, 이 중 재일코리안은 약 3만여 명이다. 그리고 일본의 외국인 수는 2008년 통계자료에 따르면 총 2,217,426명이며, 중국 출신이 655,377명(29.6%)으로 가장 많으며, 한국 출신(한국국적 및 조선적 포함)은 589,239명으로 전체의 26.6%를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브라질 출신이 312,582명, 필리핀 출신이 210,617명, 페루 출신이 59,723명 순이다.

문화접변 현상과 그 과정에서 지역사회와 어떻게 상호 공생하고 발전하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⁶⁾

이 연구의 대상인 재일코리안의 대부분은 일본 식민지시기에 이주했거나 그들의 후손이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문화접변을 경험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최근에는 자연스러운 세대교체와 함께 1980년대 후반부터 뉴커머(new-comer)라고 하는 이주자들이 일본사회에 유입되면서 식민지시대와는 또 다른 자발적인 문화접변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재일코리안 디아스포라의 문화접변에 대한 연구는 매우 의미있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II. 문화접변과 동반성장

문화접변(acculturation)⁷⁾이란 서로 다른 문화들이 지속적으로 접촉, 교류함에 따라 이주민 또는 거주국 주민들에게서 나타나는 문화적·심리적 변화의 과정을 말한다. 문화접변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선봉규 외 2013, 280-283 재인용). 초기의 문화접변에 관한 연구는 인류학을 중심으로 집단적 차원에서, 그리고 일차원적 관점을 통해 이루어졌다. 대표적으로 레드필드, 린튼과 헤르스코비츠(Robert Redfield, Ralph Linton and Melville J. Herskovits 1936, 149)는 문화접변에 대한 개념을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는 개인들의 집단이 지속적으로 직접적인 접촉을 하게 되면서 기존의 문화가 변화되는 현상”으로 정의하였다. 이후 문화접변에 대한 연구는 심리학을 중심으로 활발히 이루어졌다. 이러한 연구경향은 집단적 차원의 문화접변뿐만 아니라 개인적 차원에서의 문화접변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졌다. 집단적 차원에서의 문화접변이 사회 구조 및 제도, 문화적 실천에서의 변화와 연관되어 있다면, 개인적 차원에서의 문화접변은 개인적인 행동 선상에서 나타나는 변화와 관련되어 있다. 베리(Berry 2005, 698-699)는 문화접변을

6) 이 연구에서는 재일코리안의 문화접변과 동반성장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주로 인터뷰 자료들을 활용하고 있다. 즉 이 연구에서 활용된 자료는 2014년 4월 17일부터 23일까지 일본 오사카 이쿠노쿠 코리아타운을 직접 방문하여 실시한 인터뷰 자료(7명)와 선행연구자들의 자료들이다. 오사카 이쿠노쿠 현지조사에서 실시한 인터뷰의 대상자들은 다음과 같다. 김광민(남/44/3세), 김정순(여/55/뉴커머), 오광현(남/57/2세), 이경일(여/87/2세), 이복숙(여/78/2세), 이상호(남/46/뉴커머), 임고홍(남/3세) 등이다.

7) Acculturation에 대한 개념은 학자마다 문화변용, 문화적응, 문화접변, 문화동화 등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개인적 차원(심리적 문화접변)과 집단적 차원(문화적 문화접변)에서 동시에 나타나는 이차원적인 과정으로 정의하였다. 아울러, 동화(assimilation)와 같은 의미로 쓰였던 일차원적 관점의 문화접변에 대한 한계로 이차원적인 문화접변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와 같이 문화접변에 관한 연구에서 대상은 초기의 집단적 차원에서 개인적 차원을 동시에 살펴보는 방향으로 변화하였으며, 방향성은 문화접변이 고유문화에서 주류문화로 편입되는 과정으로만 보는 일차원적 관점에서 고유문화와 주류문화가 동시에 작용하고 있다는 이차원적 관점으로 변화하였다.

베리(Berry 1997, 10)는 이주민이 '모국의 문화적 정체성과 특성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와 '주류사회와의 관계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수용 태도에 따라 4가지의 문화접변 전략을 제시하였다. 통합전략(integration strategy)은 이주민이 자신의 고유한 문화를 유지하는 동시에 거주국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주류 문화를 받아들이는 전략을 의미한다. 주변화전략(marginalization strategy)은 이주민이 자신의 고유한 문화를 지키지도 못하고 거주국의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지도 못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동화전략(assimilation strategy)은 이주민이 자신의 고유한 문화와 정체성을 버리고 거주국의 새로운 문화를 일반적으로 받아들이는 유형이다. 분리전략(separation strategy)은 동화전략과 반대로 이주민이 자신의 고유한 문화를 지키지만, 거주국의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태를 말한다(김렬 2011, 288). 이 중 통합전략은 베리를 포함한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서 가장 선호되어온 문화접변전략이다(박정의 외 2012a, 11).

베리의 방법론을 코리안 디아스포라에 적용하여 분석한 연구결과를 보면, 재미한인의 경우는 통합전략이 가장 우세한 유형으로 조사되었으며, 다음으로 분리전략, 주변화전략, 동화전략 순으로 나타났다(박정의 외 2012b, 483-484). 중국조선족 또한 재미한인과 마찬가지로 통합전략의 성향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분리전략, 동화전략 순으로 조사되었다(선봉규 외 2013, 288). 이러한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통합전략은 이주민이 거주국 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정착, 적응하는 데 선호하는 전략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통합전략은 이주민 혹은 주류집단이 상대방의 문화적 차이를 인정하고 소통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다음과 같이 유추해 볼 수 있다. 즉, 이주민이 자신의 고유한 문화를 유지함과 동시에 거주국 사회에 적극 참여하고 그들의 문화를 수용하려는 태도는 거주국 지역사회 내에서 주류 민족 집단과의 갈등을 지양하고 공존, 공생하는 사회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밑거름이 된다. 따라서 이주민과 주류민족간의 문화적 교류 및 소통은 두 집단 나아가 지역사회와의 동반성장을 촉진하는 창조적 에너지원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연구의 대상인 재일코리안 디아스포라는 문화접변을 통한 동반성장의

사례라고 할 수 있을 만하다. 재일코리안이 집중 거주하고 있는 일본 오사카 이쿠노쿠는 오사카시의 주변 외곽에 위치해 있으며, 다른 지역에 비해 매우 좁은 도로, 열악한 주택 환경, 공장 및 상점들이 밀집해 있어 방재상의 문제가 제기되는 등 사회 전반에 걸쳐 낙후한 지역이었다.⁸⁾ 그러나 현재 이 지역은 재일코리안 디아스포라의 모국인 한국과 거주국인 일본에서 유명한 코리아타운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으며, 한일 양국의 관광객들이 끊이지 않고 방문하는 지역으로 발전해 가고 있다. 특히 2009년 ‘오사카 이쿠노 코리아타운 공생축제’가 개최된 이후부터 코리아타운은 유동인구가 눈에 띄게 급증하고 있으며, 시장경제가 활성화되면서 경제적, 사회적으로 지역사회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이 연구는 일본 오사카 이쿠노쿠 미유키도오리 코리아타운에 거주하고 있는 재일코리안 디아스포라의 문화접변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거주국 지역사회 주민과의 공존, 공생을 위한 프로그램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Ⅲ. 재일코리안의 현지적응과 정체성

1. 이주와 민족차별에 따른 동화 과정

한국의 디아스포라 역사에서 ‘재일코리안’⁹⁾은 1910년 한·일 강제병합에서 시작되는 일본제국주의 식민지 통치의 산물이다. 대부분의 재일코리안은 일제의 식민지배 정책으로 인해 비자발적이거나 강제적으로 일본으로 이주한 사람들이다. 재일코리안의 이주는 크게 네 시기로 나누어 볼 수 있다(윤인진 2004, 153). 첫째, 1910년 강제병합 이후 1938년에

8) 오사카시 홈페이지(<http://www.city.osaka.lg.jp>, 검색일: 2014/08/10).

9) 학계에서 일본에 거주하는 ‘또 다른 우리’에 대해 ‘재일동포,’ ‘재일교포,’ ‘재일한국인,’ ‘재일조선인,’ ‘재일코리안,’ ‘재일(자이니치),’ ‘한국계 일본인’ 등 다양한 용어로 부르고 있다. 국적으로 보면 대한민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귀화 일본인, 무국적 등 네 가지가 있다. 이처럼 용어부터 시작하여 국적에 이르기까지 매우 복잡한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무엇보다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지배와 해방 이후 남북한의 분단으로 인한 이념 대립의 결과라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국적, 이념의 구분 없이 일본에 거주하는 한인들을 포괄하는 의미로 ‘재일코리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재일코리안의 용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정진성(2012); 이창익(2014)의 자료를 참조할 것.

이르기까지 일제의 식민지 정책과 조선에서의 농민층의 몰락으로 도입한 시기(1910-1938)이다. 둘째, 일본의 전쟁 수행을 위해 대대적으로 강제동원이 이루어지던 시기(1939-1945.8)이다. 셋째, 1945년 8월 일본의 패망 이후부터 1980년대 말까지의 시기(1945.8-1988)이다.¹⁰⁾ 넷째, 1989년 한국정부의 ‘해외 여행 자유화’ 조치 이후 도입한 이른바 ‘뉴커머’의 이주이다.¹¹⁾

이렇게 네 시기에 걸쳐 일본으로 이주한 재일코리안은 2013년 현재 총 892,704명¹²⁾이다. 재일코리안의 주요 거주 지역을 보면, 오사카부에 가장 많은 124,167명이 살고 있으며, 다음으로 도쿄도에 104,915명, 효고현에 50,438명, 아이치현 39,502명, 가나가와현 32,525명, 교토부에 30,815명, 후쿠오카현에 18,390명, 사이타마현에 18,377명, 치바현에 17,630명, 히로시마현에 10,334명 등 10개 지역에 절반 이상이 거주하고 있다.¹³⁾

재일코리안은 직접적인 식민지배 경험뿐만 아니라 거주국에서 수많은 차별과 억압, 그리고 끊임없는 동화의 압력 속에서 살아야 했으며, 반면 일본인들은 재일코리안에 대해 습관적으로 차별의 마음을 품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한 연구결과에서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재일코리안을 친한 친구로 두고 있는 한 일본인의 경험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난 이쿠노쿠에서 태어나서 자라났어. 초등학교와 중학교 때 친구들 중에 ‘김’씨나 ‘박’씨라는 성이 많았는데 난 전혀 이상하다고 인식하기 못했어. 그것이 너무나 당연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중학교 3학년 때 졸업식 날 한 사람씩 졸업장을 수여하는데 그때까지 ‘이노우에’라고 불렀던 친구가 졸업식에 한국명으로 불린거야. 근데 그런 사람이 매우 많았어. 그래서 친한 친구 중에 ‘박’군이라고 있었는데 그 친구에게 왜 이름이 다르냐고 물었더니, 난 자이니치(재일한인)야 이러더라고. 처음으로 그를 통해서 박군의 할아버지와 할머니 이야기를 듣고 큰 충격을 받았어. 집에 돌아와서 어머니께 이 이야기를 했더니 ‘그렇구나, 그 아이 좋은 아이였는데 조센징이구나’ 라는 차별적인 말을 하더라고. 이것이 세컨드 임팩트였어(임승연 외 2011, 115-116 재인용).”

10) 1945년 8월 일본의 패망 당시 재일코리안은 210만 명에 이르렀는데, 그 중 150만 명 정도가 귀국하였으며, 60여만 명이 잔류하였다(전기호 2003, 62).

11) 재일코리안은 이주시기를 기준으로 올드커머와 뉴커머로 분류된다. 올드커머는 일제 식민지시대에 이주한 사람들로써 한국 국적과 조선적을 가지고 있는 반면, 뉴커머는 1989년 이후 이주한 사람들로 대부분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

12) 이 수치는 귀화자를 포함하고 있는데, 귀화자는 345,774명이다. 외교부 홈페이지(<http://www.mofa.go.kr>, 검색일: 2014/08/12).

13) 외교부 홈페이지(<http://www.mofa.go.kr>, 검색일: 2014/08/12).

재일코리안들은 1945년 8월 해방 이후 연합국과 일본정부에 의해 식민지시대 가져왔던 일본 국적을 박탈당하여 일상생활에서 차별과 불이익을 당해야 했고, 단일민족국가라는 이데올로기에 의해 버려진 사람으로 취급을 받았으며, 외국인 등록 및 갱신 시 지문날인¹⁴⁾을 요구하는 등 잠재적인 범죄인 취급을 받으면서 살아왔다(문옥표 외 2002, 56).

대부분의 재일코리안은 일상생활 속에서 사회적 압력 내지 차별, 그리고 불이익을 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른바 '통명(alias)'이라고 불리는 일본식 이름을 가지고 있다. 재일코리안의 통명 사용은 일제 식민지시대의 '창씨개명(創氏改名)'과 관련이 있다. 일본제국은 1939년 동화정책의 일환으로 식민지 조선인의 민족 고유의 이름을 빼앗고, 일본식 이름을 강요하는 창씨개명을 단행했다. 한 연구 자료에 의하면, 1996년 오사카시 공립학교에 다니는 재일코리안 학생들의 본명 사용은 10%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오정화 외 2007, 159).

이렇게 통명 사용과 관련하여 한 가지 주목할 만한 것은 통명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이 일본사회에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통명이 아니라 민족 이름으로 언론에 대서특필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사실은 창씨개명과 동화를 지향하는 일본정부의 이중적 태도를 엿볼 수 있다. 이러한 태도는 최근의 한 사례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재일코리안 2세 김OO은 근무지에서 통명 사용을 강요당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하여 건설업자와 일본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항소심 재판 결과, 원고 항소가 기각된 바 있다(교도통신 13/11/26). 재일코리안이 일본식 이름을 사용하여 생활하는 과정에서 차별을 겪은 사례는 비일비재하며, 이러한 현상은 오사카 현지조사에서 수집한 인터뷰 자료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국민학교, 중학교는 이 동네(오사카 이쿠노쿠)에서 다녔으니까 일본 친구들이 나를 다 한국 사람으로 알고 있거든. 중학교 때까지는 일본식 이름이 있어도 한국 이름을 사용했거든. 자부심이 있었지. 그런데 중 3때 담임교사가 고등학교 들어가면 일본식 이름을 쓰는 게 좋다고 했거든. 지금 생각해보면 차별인데. 그 당시 그런 여유도 없고, 일본 이름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나는 한국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었어. 3년 동안 가장 친한 일본인 친구에게 단 한번 말했지. ‘나 한국사람이야.’ 일본 친구가 웃었어. ‘너는 조센징이야.’ 싸웠어. 대학교에서는 그런 고민하고 싶지 않으니까 처음부터 한국 이름으로 들어갔고.”¹⁵⁾

14) 지문날인에 대한 한 재일코리안의 인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지문날인?, 그거 반대해도 생각에 따라 달라요. 우리는 일본사람 아니잖아. 외국에서 살잖아. 반대해도 일본에서는 통하지 않아요.” 이복숙, 2014년 4월 18일(금) 인터뷰.

15) 오광현, 2014년 4월 20일(일) 인터뷰.

재일코리안의 디아스포라적 경험은 한 세기가 넘었으며, 거주국에서 정주기간이 길어지면서 재일코리안 사회에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세대교체에 따른 민족의식의 변화이다. 현재 재일코리안 사회는 1세대가 극소수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2세와 3세가 재일코리안 사회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들은 주로 일본에서 태어나 성장한 세대로 모국 지향에서 거주국 중심의 가치지향을 가지고 있다(윤인진 2004, 165). 2세 이후 세대들은 일본 학교에서 일본어를 배우고, 일본인과 친구관계를 형성하며, 일상생활에서 일본어를 사용하고 있다. 또한 일본인과의 교류, 접촉이 일상화되면서 민족정체성 또는 민족의식의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 중의 대표적인 것이 일본인과의 혼인 및 일본으로의 귀화하는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표 1〉은 1955년부터 2012년까지 재일코리안의 혼인 변화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1955년과 1965년의 자료를 보면, 재일코리안 간의 혼인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일본인과의 혼인에서는 재일코리안 남성과 일본인 여성 간의 결혼이 이루어지고 있다.

〈표 1〉 재일코리안의 혼인 변화 추이(1955년~2012년)

년도	혼인 건수	재일코리안과의 혼인		외국인과의 혼인	일본인과의 혼인			기타 외국인
		건수	비율		일본인 아내	일본인 남편	합계	
1955	1,102	737	66.9%	33.1%	22.0%	8.5%	30.5%	2.6%
1965	5,693	3,681	64.7%	35.3%	19.8%	14.8%	34.6%	0.7%
1975	7,249	3,618	49.9%	50.1%	21.4%	27.5%	48.9%	1.2%
1985	8,588	2,404	28.0%	72.0%	29.4%	42.2%	71.6%	0.4%
1990	13,934	2,195	15.8%	84.2%	19.5%	64.2%	83.7%	0.5%
1995	8,953	1,485	16.6%	83.4%	31.7%	50.5%	82.2%	1.2%
2000	9,483	1,151	12.1%	87.9%	21.7%	65.5%	87.2%	0.7%
2005	9,238	866	9.4%	90.6%	22.6%	65.7%	88.3%	2.4%
2012	5,511	498	9.0%	91.0%	33.1%	54.5%	87.6%	3.4%

출처: 민단 홈페이지(<http://www.mindan.org/kr>, 검색일: 2014년 5월 31일)

그러다가 1970년대 이후부터 재일코리안간의 혼인 건수가 대폭 감소하는 추세에 있는 반면, 일본인과의 혼인 건수는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일본인과의 혼인 중에서도 일본인

아내보다 일본인 남성과의 결혼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1980년대 후반 한국의 해외여행 자유화 조치 이후 뉴커머들, 특히 한인 여성들이 서비스업에 종사하면서 일본인 남성과 혼인하게 되면서 비롯된 것이다(윤인진 2004, 167). 이러한 사실은 한 연구결과의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결혼은 (일본에) 와서 살다가 했어. 외국생활을 하다 보면 비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 있잖아 ... 일본 사람이랑 결혼을 했어. 그 방법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 싫은 사람이랑 살려니 문제가 자꾸 생기고...이곳에서는 정식비자를 받지 못하지. 관광비자로 와서 일을 하면 안 되는데 문제가 많지. 나이 든 사람들은 대부분 비자 문제에서 벗어나려고 결혼은 했지 (임승연 외 2011, 111 재인용).”

〈표 2〉는 1952년부터 2012년까지 재일코리안이 일본으로 귀화한 현황을 나타내고 있다. 일반적으로 재일코리안 1세는 피식민지의 국민으로서 억압과 핍박, 차별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일본에 대한 반감과 적개심이 강하다. 반면, 재일코리안의 젊은 세대들은 차별을 넘어서 일본 국민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가기 위해 일본 국적을 취득하고 있다(윤인진 2004, 168). 이러한 사실은 오사카 현지조사에서 수집한 인터뷰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재일코리안 사회에서 1세들은 일본 사회의 직접적인 핍박과 차별을 경험했기 때문에 스스로 자존심을 지키는 것은 국적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짐승 취급을 받고 있는 사회에서 스스로를 내세우는 유일한 것은 조국이 있다는 것이예요. 3세들은 1, 2세들의 노력에 의해 일본 사회가 조금씩 변화되고 있음을 알고 있어요. 3세들은 자기 자신의 발전을 위해 시간을 투자해요. 조국을 보는 눈, 일본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내가 살아가는데 국가에 구애 받지 않아도 되고, 내가 개척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감각을 갖게 된 것이죠.”¹⁶⁾

재일코리안의 귀화는 1952년 232건, 1953년 1,326건, 1960년 3,763건 등 비교적 완만하게 증가하다가 1990년 5,665건, 1995년 10,327건으로 급증하는 등 1990년대 이후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귀화자가 증가하게 된 배경은 무엇보다 일본의 국적법 개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일본은 1985년에 기존의 부계혈통주의의 국적법을 양계혈통주의로 변경함으로써 부모 중 한 사람이 일본인이면 일본 국적을 취득할 수 있게 하였다.

16) 김광민, 2014년 4월 21일(월) 인터뷰.

이러한 법 개정으로 재일코리안과 일본인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들이 일본 국적을 취득하게 되면서 귀화자의 수가 꾸준히 지속되고 있다.

〈표 2〉 재일코리안의 귀화 현황(1952년-2012년)

년도	귀화	년도	귀화	년도	귀화	년도	귀화	년도	귀화
1952	232	1965	3,438	1978	5,362	1991	5,665	2004	11,031
1953	1,326	1966	3,816	1979	4,701	1992	7,244	2005	9,689
1954	2,435	1967	3,391	1980	5,987	1993	7,697	2006	8,531
1955	2,434	1968	3,194	1981	6,829	1994	8,244	2007	8,546
1956	2,290	1969	1,889	1982	6,521	1995	10,327	2008	7,412
1957	2,737	1970	4,646	1983	5,532	1996	9,898	2009	7,637
1958	2,246	1971	2,874	1984	4,608	1997	9,678	2010	6,668
1959	2,737	1972	4,983	1985	5,040	1998	9,561	2011	5,656
1960	3,763	1973	5,769	1986	5,110	1999	10,059	2012	5,581
1961	2,710	1974	3,973	1987	4,882	2000	9,842	합계	346,199
1962	3,222	1975	6,323	1988	4,595	2001	10,295		
1963	3,558	1976	3,951	1989	4,759	2002	9,188		
1964	4,632	1977	4,261	1990	5,216	2003	11,778		

출처: 민단 홈페이지(<http://www.mindan.org/kr>, 검색일: 2014년 5월 31일)

그리고 재일코리안 사회에서 젊은 세대의 경우는 일본인과의 교류와 접촉이 일상화되면서 자연스럽게 주류사회로의 진출을 꾀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오사가 현지조사에서 수집한 인터뷰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큰 딸을 중학교까지는 조선학교에 보내고, 고등학교를 일본 학교에 보냈다고 욕 많이 했어요. 일본에서 살자면 일본 교육을 받아야 해요. 취직이 어려워요.”¹⁷⁾

“여기 3세, 4세들은 독도문제나 위안부문제에 대해 큰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좋은 직장구해서 잘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관심이지. 우리 아들도 그래요. 한국과 일본이 축구하는데 아빠와 아들은 일본 응원하고, 나는 한국응원하고, 조금 달라요.”¹⁸⁾

17) 이복숙, 2014년 4월 18일(금) 인터뷰.

18) 김정순, 2014년 4월 19일(토) 인터뷰.

2. 정체성 드러내기

이쿠노쿠 지역은 오사카시의 주변지역에 위치하며, 일제 식민지 이래 재일코리안의 커뮤니티가 형성되고 한국의 문화가 유지, 계승되는 지역이다(이희숙 2003, 250). 이쿠노쿠 지역은 재일코리안 중에서 올드커머들이 집중 거주하고 있는 곳이며, 대부분 이쿠노쿠의 미유키도오리(御幸通), 츠루하시(鶴橋) 등에 거주하고 있다. 이쿠노는 옛 이름이 '이카이노(猪飼野)', 즉 '돼지를 기르는 들판' 이라고 불릴 정도로 매우 척박한, 그리고 버려진 땅이었다(양영희 2007, 244). 일본인들이 버린 이 땅은 식민지시대 강제징용으로 끌려온 재일코리안들이 온갖 차별과 멸시를 이겨내며 일궈낸 곳이다.

일제 식민지시대 조선인들이 이 지역에 이주하게 된 이유는 1920년대 이쿠노쿠를 가로질러 흐르는 히라노(平野) 운하 건설 공사를 위해 많은 노동력이 필요하게 되면서 비롯되었다. 당시 조선은 일본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매우 싼 임금으로도 위험이 따르는 육체노동을 강제할 수 있는 대상이었다. 특히 1923년부터 제주도와 오사카 사이를 연결하는 '기미가야마루'라는 정기 여객선이 운항되면서 많은 제주도 출신 조선인들이 유입되었다.¹⁹⁾ 조선인들은 히라노(平野) 운하 건설공사 현장을 중심으로 모여 살기 시작했고, 공사가 끝난 뒤에도 그곳에 계속 남아 항만, 건설, 광산 노동자로 삶을 이어가게 되었다(김남일 외 2007, 226). 아울러 이 지역에 거주하게 된 친척과 친구들을 근거지로 삼아 더 많은 조선인들이 연쇄 이주(chain migration)하여 정착하였다. 그리하여 이곳에 조선인 마을이 형성되었으며, 마을의 생필품을 조달하는 조선시장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오사카 이쿠노쿠의 재일코리안들은 1945년 8월 15일 해방 이후 일본정부의 차별정책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지역사회에 드러내기를 매우 꺼려했다. 그러던 것이 1983년 '이쿠노민족문화제'라는 최초의 재일코리안만의 축제를 개최하면서 자신들의 민족문화 및 정체성을 지역사회에 적극적으로 표방하기 시작했다(이상봉 2011, 247). 1983년 10월 15일 '하나가 되어 키우자. 민족의 문화를 ! 낚을!'이라는 슬로건 하에 제1회 '이쿠노민족문화제'가 개최되었다. 제1회 축제에서는 마당극, 농악, 민요, 탈춤, 부채춤, 결혼가장행진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오사카를 포함한 관서지방의 재일코리안 뿐만 아니라 도쿄를 중심으로 하는 관동지방의 재일코리안 등 약 3천여 명이 참여하여 민족의 전통문화와 예술을 체험, 공유하였다(이희숙

19) 오사카 이쿠노쿠의 인구는 2009년 현재 약 13만 천 5백 명이다. 이 중 외국인 등록자 수가 약 3만 7백 명이며, 한국조선적의 재일한인은 약 2만 8천 6백 명으로 이쿠노 구민 전체 인구 중 21.3%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재일코리안 2만 8천 6백 명 중 1만 5천여 명이 제주 출신으로 추정되고 있다(제주일보 10/07/26).

2003, 250). 이 축제의 특징은 무엇보다 재일코리안의 여러 축제 중에서도 처음으로 일본사회의 차별과 편견에 맞서 이쿠노 지역의 재일코리안들이 함께 모여 지역주민들(일본인들)을 대상으로 재일코리안의 민족문화를 알리고 정주인으로서의 지위를 확보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되었다는 것이다. 이렇게 이쿠노의 재일코리안 민족문화축제는 2002년 까지 매년 2,000~4,000여 명이 참가하였고, 재일코리안들은 축제를 통해 민족의식 제고 및 민족의 정체성을 확인했다(문옥표 외 2002, 293). 특히 재일코리안들은 민족문화축제를 통해 지역주민과의 갈등을 반복하면서 일본사회에 재일코리안의 존재감을 각인시켰다. 이렇게 재일코리안의 정체성 드러내기 현상은 자녀들의 결혼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오사카 현지조사에서 수집한 인터뷰 자료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사위 중에 일본 사람이 있는데, 작은 딸이 일본 사람과 결혼했어요. 반대 많이 했지요. 그때 시절에는 일본 사람이랑 결혼하는 것이 안 되잖아요. 너무너무 죽도록 반대했어요. 작은 딸이 1년 동안 숨어 살고 그랬어요. 결국에는 겨우겨우 찾아서 결혼시켰어요.”²⁰⁾

오사카 이쿠노쿠 코리아타운, 특히 미유키도오리²¹⁾는 재일코리안의 경제생활이나 소비 생활의 중심지일 뿐만 아니라 재일코리안 사회를 상징하는 곳이다. 미유키도오리 코리아타운은 일제 식민지시대에 형성된 조선시장으로부터 비롯된다. 그런 점에서 아직도 기성세대나 이쿠노쿠 주민들은 ‘조센이치바(조선시장)’라는 애칭으로 불리고 있다. 이 시장은 1920년대부터 재일코리안들이 무허가 좌판을 펼치고 김치, 된장, 그리고 생활용품 등을 파는 장사를 하기 시작했으며, 장사에 나서는 사람들이 점차 많아지면서 ‘조선시장’으로 불리게 되었다. 이렇게 형성된 조선시장은 단순히 상품의 거래만 이루어지는 곳만은 아니었다. 조선시장은 주변 지역에 살고 있는 재일코리안 간의 상품 거래와 함께 모국의 소식이나 지역내의 생활 및 구직 정보 등을 나누는 곳이 되었다. 특히 1960년대까지는 일본 내에서 모국의 전통문화관련 상품을 파는 메카로서의 역할을 하였다. 이 시장은 관혼상제나 명절 때가 되면 한복이나 제수음식 재료 등을 구입하는 곳으로, 명절 무렵이면

20) 이경일, 2014년 4월 19일(토) 인터뷰.

21) ‘미유키도오리’라는 명칭은 4세기경 백제에서 건너온 사람들이 이 근처에 살고 있을 당시 그 모습을 시찰하기 위해 행차한 닌토쿠 천황이 잠시 쉬었던 장소(지금의 서상점가 끝에 있는 숲)에 「미유키노모리 신사」가 건립된 것이 그 유래라고 전해진다. 오사카관광컨벤션협회 홈페이지 (<http://www.osaka-info.kr>, 검색일: 2014/07/15).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재일코리안들이 방문하면서 성대한 시장이 형성되기도 했다(이상봉 2011, 239-241).

이 시장은 1970년대 이후 재일코리안 사회의 세대교체가 진행되면서 점차 모국의 음식문화 및 전통문화에 대한 의식이 바뀌게 됨에 따라 민족관련 상품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게 되어 점차 쇠락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다. 이 시장은 1980년대까지 '서터의 길'이라고 할 정도로 재일코리안이나 일본인으로부터 큰 주목을 받지 못해 문 닫는 가게가 늘어나기 시작했다(제주투데이 10/07/26). 이러한 상황에서 미유키도오리 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1988년 '코리아타운 추진위원회'가 결성되면서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미유키도오리 코리아타운 추진 계획은 재일코리안과 일본인 상점주간의 인식 차이로 인해 흐지부지 되었다. 그러던 것이 1993년 새롭게 구성된 코리아타운 추진위원회가 동쪽 상점가 입구에 코리아타운을 상징하는 게이트(백제문)을 세우면서 본격화되었다.

오사카 이쿠노쿠 미유키도오리 코리아타운은 서쪽의 미유키모리진자(御幸森神社)에서 동쪽의 히라노 운하까지 약 600m 도로의 좌우에 상점가가 형성되어 있는 곳이다. 이곳은 미국 LA의 코리아타운과 같이 행정구역상으로 붙여진 명칭이 아니다. 미유키도오리 코리아타운은 1993년에 동 상점가, 중앙 상점가, 서 상점가 등 3개의 상가 입구에 '코리아타운'이라는 문을 설치하면서 불리어지게 되었다(이상봉 2011, 238). 동 상점가의 입구에는 서울의 남대문 형상을 띠고 있는 문이 서있는데, 그 문에는 '百濟門(백제문)'이라고 적혀 있으며, 그 아래에는 'KOREA TOWN'이라고 쓰여 있다. 그리고 중앙상점가에도 'KOREA TOWN'이라는 글씨와 함께 일본어 및 한글로 'オイソ 오이소, 보이소, 사이소 사이소' 라는 글귀가 쓰여 있다.

현재 미유키도오리 코리아타운 거리에는 재일코리안과 일본인의 상점 150여개가 운영되고 있다. 이 중 120여 개의 점포가 재일코리안들이 운영하고 있다. 재일코리안들의 점포는 주로 김치 및 반찬류, 건어물 및 생선류, 식육점, 야끼니쿠가게, 한복가게 등이다. 이와 같이 오사카 이쿠노쿠 미유키도오리 코리아타운은 식민지시대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재일코리안들이 일본사회에서 모국의 식문화와 전통문화를 향유하고 유지하는 공간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IV. 다문화 공존 · 공생 전략과 동반성장

1. 재일코리안의 통합전략

2002년 월드컵의 한일 공동개최와 2003년 한국 드라마 ‘겨울연가’가 NHK에서 방영된 이후 일본에서 한류 붐이 확산되면서 이쿠노쿠 코리아타운에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코리아타운에 한류 전문 상점이 생기고, 일본인 관광객들은 한국 요리를 먹거나 한류스타의 포스터나 관련 상품을 구매하기도 한다. 또한 한류 붐 이후 뉴커머 코리안들이 급속히 유입되면서 미유키도오리 코리아타운은 기존의 올드커머 코리안과 일본인 이외에 뉴커머 코리안들에 의해 상점들이 운영되고 있다. 이처럼 일본사회에서 한류의 확산은 오사카 이쿠노쿠 미유키도오리 코리아타운의 풍경을 바꾸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아래의 인터뷰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외부에서 관광객이 많이 오는 것은 매우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점을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보니 고객이 많이 오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긍정적입니다. 부정적인 것은 글썽요. 상점을 운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한류 붐은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코리아타운 사무국 맞은편 가게도 본래는 일본인이 운영하는 쌀집이었는데 지금은 한국 식기를 같이 취급해요(손미경 2013, 71 재인용).”

“미유키도오리 코리아타운은 한류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어요. NHK에서 방영된 드라마 겨울연가 때문에 일본 사람들이 김치를 먹고, 비빔밥을 먹게 되면서 이 타운에 김치, 반찬가게가 많이 생겨났어요. 한류스타 장식품이나 화장품을 파는 한류숍도 생겨나고요. 활기가 있어요.”²²⁾

현재 미유키도오리 코리아타운은 다양한 주체들이 모여 살고, 다양한 차이들이 존재하는 공간으로 변모해가고 있다. 그 결과 미유키도오리 코리아타운은 다양한 주체들이 함께 살아가야 할 공존, 공생의 공간이 되어가고 있다. 미유키도오리 코리아타운의 재일코리안들은 이 지역을 다문화 공생의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²³⁾

22) 이상호, 2014년 4월 21일(월) 인터뷰.

첫째, 재일코리안들은 일본사회에 조성된 한류 붐을 적극 활용하여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고 있다. 일본에서 한류의 확산은 미유키도오리 코리아타운이 그 동안 재일코리안만의 공간으로만 위치 지어진, 즉 보수적이고, 폐쇄적인 민족집거지라는 인식을 전환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미유키도오리 코리아타운내 반가식공방(班家食工房)에서는 2002년 10월에 ‘이문화체험센터’를 개설하여 김치 만들기, 한국 요리 교실, 한국어 강습 등 한국의 전통 음식과 문화를 일본인에게 소개하고 직접 체험하게 함으로써 일본인과 재일코리안 간의 공생과 상호문화 이해의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둘째, 오사카 이쿠노쿠 지역의 재일코리안들은 <코리아NGO센터>를 설립하여 다민족, 다문화 공생 사회 실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²⁴⁾ 이 단체는 2004년 3월 27일에 재일한국민주인권협의회, 민족교육문화, 원코리아페스티벌실행위원회 등 세 단체가 통합하여 설립되었다. 이 단체는 재일코리안의 민족교육권의 확립과 다민족·다문화 공생 사회의 실현을 위한 활동을 중심으로 펼치고 있다.²⁵⁾ 먼저, 민족교육권 확립 사업은 지역내의 소학교에 ‘민족학급’을 개설,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재일코리안의 민족문화 및 정체성을 유지, 확립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오사카지역내 민족학급 및 민족클럽은 소중학교 106개교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1992년부터는 민족학급 지원 사업으로써 ‘민족클럽 기술지도자 초빙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 사업은 2007년부터 ‘국제이해교육 추진사업’으로 개편하여 운영되고 있다. 오사카시립 소학교에 재직 중인 재일코리안 아동 수는 1,633명이며, 민족학급에 다니고 있는 아동 수는 1,020명에 이른다. 오사카시에서는 재일코리안의 민족교육 실시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국제이해교육의 민족강사 및 시간강사의 급여 및 교통비 등을 지급하고 있다.²⁶⁾

또한 다민족다문화 공생 사회 실현을 위한 사업은 ‘미유키도오리 코리아타운 현장 체험 학습’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일본의 초·중고 학생들의 수학여행, 교직원이나 학부모회의 인권 연수, 일반인들의 이문화 이해 및 역사학습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23)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재일코리안의 문화변용전략은 통합전략이 가장 우세하고, 다음으로 분리전략, 동화전략 순으로 조사되었다(선봉규 2014, 346).

24) 코리아NGO센터 홈페이지(<http://korea-ngo.org>, 검색일: 2014/09/15)

25) 이외에도 재일코리안 사회의 풍부한 사회 기반 창조와 동아시아에 있어서의 코리안·네트워크의 구축, 재일코리안과 일본간의 시민, NGO의 교류·협력 사업의 전개와 시민사회의 상호 발전에의 기여, 남북 코리아의 통일과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에 기여 등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26) 국제이해교육 추진사업의 예산을 보면, 2010년도에는 3,929만엔, 2011년도에는 3,855만엔이 책정되었다

아울러 이문화로서의 재일코리안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한글, 김치, 장구 등의 강습을 비롯하여 한복, 전통공예, 태권도, 지지미 등 한국의 전통문화 및 음식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이상봉 2011, 255).

이와 같이, 오사카 이쿠노쿠 미유키도오리 코리아타운에 거주하고 있는 재일코리안들은 자신의 고유한 문화와 민족정체성을 유지하고 지역사회 내 일본인과의 적극적인 교류 및 관계를 증진시키는, 이른바 통합전략을 취하면서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살아가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오사카 이쿠노쿠 코리아타운에서 거주하고 있는 재일코리안의 인터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나는 일본에서 한국 사람으로 살아도 곤란한 점이 없어. 왜냐하면 일본 사람도 친하고, 한국 사람도 친하고, 민단, 총련 다 친하게 지내요. 일본에서 살려면 무엇보다 동네 인심을 잃으면 안돼요. 일본 국회의원, 시의원, 경찰 다 좋게 지내고 있어요. 한국 사람, 조선 사람들이 운영하고 있는 병원에 일본 환자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간호사들이 친절하게 잘 하니까.”²⁷⁾

“5년 전 부터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내 이익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다. 여기 (미유키도오리 상점가)는 재일코리안에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거리가 없어지지 않도록 뭔가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일본 사회에서 한국 문화도 알 수 있고, 일본 문화도 만날 수 있고, 전 세계 사람들도 만날 수 있는 곳으로 만들고 싶다. 그렇게 하면 이 동네의 발전에 공헌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²⁸⁾

2. 일본사회의 다문화공생 사업

일본 정부는 2006년부터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이주민이 일본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데 지원할 뿐만 아니라 폐쇄적인 민족집거지가 일본 사회에 융화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다문화공생’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다문화공생 사업이란 외국인 구민과 일본인 구민이 상호간의 문화적 차이를 서로 인정하고 대등한 관계를 구축하는데 있으며,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함께 살아감으로써 새로운 문화의 창조와 지역 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해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지역 사회를 만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구체적인 다문화공생의 추진 사업을 보면, 커뮤니케이션 지원, 생활지원, 다문화공생의

27) 이복숙, 2014년 4월 18일(금) 인터뷰.

28) 임고홍, 2014년 4월 21일(월) 인터뷰.

동네 만들기, 지역 활동단체 및 자원봉사 등 지역 협동체제 구축이다. 커뮤니케이션 지원 사업은 외국인 주민에게 생활 정보를 외국어 및 일본어로 동시에 표기하여 언어의 벽을 제거한다는 것이다. 생활지원은 외국인 주민이 복지, 의료, 교육, 방재 등 생활에 밀접하게 관련 되는 정보 제공과 외국어 상담 창구를 마련하며, 이주민이 다문화공생 활동을 펼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것이다. 다문화공생의 동네 만들기는 외국인 주민에게 일본 문화와 습관을 이해할 수 있게 교육하거나 주민 상호간의 문화, 습관의 차이를 인정하고, 지역 활동단체와 연대하여 외국인 주민과 일본인과의 대등한 인간관계를 구축하도록 하는데 있다. 마지막으로 지역 내 다문화공생 사업의 협조자로서 자치회, 민간사업자, NPO, 자원봉사단체, 교육기관 등과 적극적으로 연대하여 협동체제를 강화하여 다문화공생 사업을 활성화 시킨다는데 있다.

이 중에서도 특히 ‘다문화공생의 동네 만들기’ 사업은 이쿠노쿠 코리아타운에서 적극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이쿠노쿠청은 이쿠노지역에 산재해 있는 명소, 유적지, 먹거리, 축제, 음악, 예술 등의 관광문화자원을 발굴하여 지역을 안내, 홍보하는 ‘이쿠나비(IKUNAVI)’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2011년에는 구청과 마을 주민이 참여하는 ‘이쿠노 우리마을 클럽’이 매월 1회 정기적으로 강좌를 실시하고 있으며, 재일코리안들도 참여하여 이쿠노 코리아타운을 알리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이쿠노 지역에 있는 관광자원을 소개하는 ‘타운 맵’을 제작하여 지역주민 및 관광객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민단신문 12/02/08).

오사카시에서는 시내에 체류 또는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언어와 생활습관, 사회 시스템 등의 차이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안감과 불편함, 그리고 불이익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7개국 언어(영어, 중국어, 한국/조선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태국어, 인도네시아어)로 작성된 <외국적주민상담창구>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시 차원에서는 오사카국제교류센터와 시청시민상담실에서 ‘시정상담’과 ‘법률상담’을 운영하고 있다. 시정 상담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운영되며, 법률상담은 매주 수요일에 7개국 언어로 이루어지고 있다. 구청에서는 이주민들을 위한 상담전용 전화를 설치하고 7개국 언어로 국민건강보험 등의 구청 업무 및 시정에 관한 문의와 상담, 정보제공 등을 시행하고 있다.²⁹⁾ 이와 같이, 일본정부의 다문화공생 사업은 무엇보다 이주민이 지역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일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주체로서 자각하는 계기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시사적이다.

29) 오사카시 홈페이지(<http://www.city.osaka.lg.jp>, 검색일: 2014/08/15).

그러나 이러한 다문화공생 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점에서 여전히 일본사회는 편협한 내셔널리즘(nationalism)이 지배하고 있다. 먼저 ‘강한 일본’을 주창한 아베 정권이 등장하면서 재일코리안에 대한 차별, 배제의 정책이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으로 2010년 4월 1일 시행된 ‘공립 고등학교 수업료의 불징수 및 고등학교 등 취학 지원금의 지급에 관한 법률(고교무상화법)’에서 유일하게 조선학교만을 제외한 것이다. 이에 대해 오사카조선학원뿐만 아니라 유엔 사회규약위원회에서는 “일본 정부가 고교무상화 제도에 조선학교를 배제하는 것은 차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일본 정부는 고교무상화제도를 조선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에게도 확대할 것을 촉구한다”라는 견해를 밝혔다(월드코리아 13/05/23). 또한 아베 정권의 우경화 정책이 지속되면서 일본사회에서는 혐한시위³⁰⁾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³¹⁾ 이 혐한시위는 재일코리안들이 집중 거주하고 있는 도쿄와 오사카시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2013년 한 해 동안 360차례 이상의 혐한시위가 벌어지기도 했다.³²⁾

3. 코리아타운 공생축제

오사카 이쿠노쿠 미유키도오리 코리아타운에는 올드커머 코리안과 뉴커머 코리안, 그리고 일본인이 동 상점가, 중앙 상점가, 서 상점가 등 세 개의 상점가에서 상점을 운영하고 있다. 이들은 우여곡절 끝에 2009년 11월 15일에 <오사카 이쿠노 코리아타운 공생축제>를 개최하였다. 이 축제는 그 동안 재일코리안과 일본인 상점 간 코리아타운의 발전에 대한 인식의 차이로 상점가별로 진행되어 오다가 2008년에 세 상점가 임원들이 공동 개최를 위한 논의를 통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제1회 오사카 이쿠노 코리아타운 공생축제는 세 상점가가 공동으로 실행위원회를 구성하여 2009년 11월 15일에 약 2만여

30) 혐한시위는 ‘헤이트 스피치(hate speech, 증오연설)’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2013년 10대 유행어로 뽑히는 등 최근 일본사회에서 혐한시위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31) 최근 6년간의 혐한시위 현황을 보면, 2009년 30건, 2010년 31건, 2011년 82건, 2012년 301건, 2013년 360건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32) 재일코리안들은 한국과 일본간의 정치외교적 갈등의 직접적 피해당사자이다. 그러한 점에서 재일코리안들은 한-일간의 갈등이 일어나지 않기를 희망하고 있다. 다음은 그러한 생각을 잘 보여준다. “월드컵 같이 하고, 겨울연가 방송되면서 아주 좋아졌는데, 이명박대통령이 독도방문한 뒤로는 많이 안 좋아졌지. 한-일간의 정치적으로 민감한 부분은 자체해주면 좋겠어요. 여기 일본 사람들이 오사카나 도쿄에서 ‘김치먹지 말자’, ‘한국 사람 나가라’ 시위하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이웃이 좋아야 하니까 그런 부분은 하지 말아야.” 김정순, 2014년 4월 19일(토) 인터뷰.

명이 참가한 가운데 성대하게 개최되었다. 이후 매년 11월에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으며, 매년 약 2만여 명의 일본인 및 한국인 관광객이 방문하는 등 오사카지역에서 매우 인기 있는 축제로 성장하고 있다.

이 축제는 무엇보다 한국문화와 일본문화가 공존 또는 융합하는 장이라는 점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매우 특징적이다(이상봉 2011, 255). 2012년에 개최된 공생축제의 구성 내용을 보면, 먼저 축제의 꽃이라 할 수 있는 퍼레이드에 총 5개 그룹이 참여했다. 오사카시립 미유키모리소학교의 민족학급, 오사카 조선제4초급학교, 백두학원 건국소학교 등 재일코리안 학생들의 사물 및 풍물놀이, 상모춤이 진행된 다음, 일본 오사카 '이쿠인대의 혼성무용인 '이쿠노뉴오도리(いくのニューおどり)' 행렬이 이어졌다. 마지막으로 제주한문화네트워크의 길놀이가 공연되었다. 무대 공간에서는 총 16개 단체의 공연이 이루어졌는데, 민족학교 및 민족학급, 전통문화예술전문가, 제주한문화네트워크 등에 의한 한국의 전통문화공연과 일본 및 중국의 전통음악, 그리고 한류의 대표격이라 할 수 있는 K-POP이 공연됐다.

오사카 이쿠노쿠 미유키도오리 코리아타운 공생축제는 지역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재일코리안, 일본인, 중국인 등이 함께 참가하여 각국의 문화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장이며, 전통과 현대의 문화가 공존하는 축제로 성장하고 있는 중이다. 이와 같이, 오사카 이쿠노쿠 미유키도오리 코리아타운은 다양한 주체들의 노력 끝에 다민족·다문화가 공존, 공생하는 지역으로 발돋움하고 있다.³³⁾ 특히 공생축제에서 생산, 공유되는 다양한 문화는 곧 지역의 문화관광자원으로 대표되어 거주국 사회 및 모국으로부터 환영받음으로써 지역성장의 새로운 동력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시사적이다.

요약하자면, 재일코리안 사례를 통해 이제 디아스포라는 박해, 차별, 억압을 상징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창조적 에너지의 발현을 통해 지역사회의 구성원과 공존, 공생하고 지역성장의 중요한 원동력이 되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33) 오사카 이쿠노쿠 코리아타운에 대한 지역사회 구성원의 인식을 한 연구결과의 자료를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오사카 이쿠노쿠의 구성원들은 코리아타운을 “다문화공생의 상징적 의미를 지닌 곳”(4.05점), “한인상권 확대 등 지역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공간”(3.99점), “한류라는 문화코드를 재생산하는 한류의 메카”(3.69점), “한국에 관한 정보를 가장 먼저 접할 수 있는 공간”(3.32점), “타 외국인과의 갈등을 확대 재생산하는 공간”(2.45점) 등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손미경 2013, 103).

V. 결론

오사카 이쿠노쿠지역은 일본사회의 한 귀퉁이에서 있는 듯 없는 듯 살아가는 재일코리안의 민족집거지를 상징하는 곳이었다. 이곳은 1919년에 이쿠노를 가로지르는 히라노 운하 공사가 시작되어 식민지 조선인 노동자들이 이주해 오면서 자연스레 터를 잡기 시작했다. 특히 1923년 제주도와 오사카를 잇는 정기 연락선인 '기미가야마루'가 운항되면서 조선인 이주자가 급증하여 조선인 부락이 형성되었다. 이곳 변두리 빈민지역에 사람들이 모여 살면서 자연스럽게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사고파는 시장이 형성되었는데, 이것이 현재의 오사카 이쿠노쿠 미유키도오리 코리아타운의 기원이 되었다.

오사카 이쿠노쿠 미유키도오리 코리아타운은 식민지시대에는 에스닉 커뮤니티인 재일코리안(올드커머)만이 모여 사는 집거지였지만, 현재는 올드커머 코리안과 뉴커머 코리안, 그리고 일본인이 함께 거주하는 다문화 공동체로써 자리 잡아가고 있다. 미유키도오리 코리아타운의 중앙상점가 입구에는 일본의 가타가나와 한글로 나란히 쓰인 'オイス, ボイス, サイス' 보이소, 사이소'는 안내 문구가 있다. 이 문구는 오늘날 미유키도오리 코리아타운의 성격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지표가 되고 있다. 아울러 일본사회는 재일코리안을 비롯한 이주민이 지역사회에서 당당한 구성원으로 생활하기 위한 다양한 공생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다문화공생 사업에도 불구하고 일본사회는 여전히 재일코리안에 대한 차별과 배제의 정치가 작동되고 있다.

일본 오사카 이쿠노쿠에 거주하고 있는 재일코리안 디아스포라는 다인종, 다문화시대에 진입하고 있는 한국사회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무엇보다 오늘날 디아스포라는 단순히 지역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성장과 발전에 필요한 새로운 에너지를 창조하는 적극적인 주체가 될 수 있다. 또한 공존, 공생의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정부 및 지자체를 비롯하여 지역사회를 구성하는 주체들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다인종, 다문화시대에 어느 일방에 의한 문화접변은 불필요한 갈등을 야기하여 사회적 혼란 및 비용을 증가시킨다는 점에서 이를 경계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다인종, 다문화시대에 진입한 한국사회는 사회 곳곳에 산재하여 존재하는 다양한 이문화의 원형들을 발굴하고, 이주민문화와 주류문화 간의 교류를 통해 문화적 차이를 인정하고 체험하는 프로그램을 추진해야 한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이러한 사업들이 하나의 관광 상품으로만 여겨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참여하고 공유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또한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의 '이주민 다문화

타운'과 같이 이주민이 밀집하여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이주민 문화 거리 특구를 조성하여 지역사회의 성장과 발전에 연계시키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특히 일본 오사카 이쿠노쿠 미유키도오리 코리아타운의 사례에서도 확인되듯, 이주민 문화 특구의 조성은 문화 체험 및 교류 이외에 이주민의 유입에 따른 인구 증가와 함께 지역 내 유동인구가 증가하면서 자연스럽게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다인종, 다문화시대에 디아스포라가 단지 낯선 이방인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동반성장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존재임을 바로 인식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는 일본 오사카 이쿠노쿠 코리아타운에 거주하고 있는 재일코리아안들을 연구대상으로 삼았기에 문화접변과 동반성장 관계를 설명하는데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도쿄 코리아타운과 같은 다른 사례와 비교하는 후속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음을 밝혀둔다.

- 김남일 외. 2007. 『분단의 경계를 허무는 두 자이니치의 망향가』. 서울: 현실문화연구.
- 김 렬. 2011.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접변에 대한 정책지원의 효과.”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5(4), 285-308.
- 문옥표 외. 2002. 『일본 관서지역 한인동포의 생활문화』. 서울: 국립민속박물관.
- 박정의 외. 2012a. “재미한인의 삶의 만족감과 문화변용.” 『스피치와커뮤니케이션』 19, 7-37.
- _____. 2012b. “재미한인의 문화변용전략과 미디어 콘텐츠.”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2(12), 479-488.
- 선봉규 외. 2013. “중국 연변조선족의 문화변용전략 양상 연구: 연길시 거주 조선족을 중심으로.” 『평화학연구』 14(5), 117-136.
- 선봉규. 2014. “한민족 디아스포라의 문화변용 연구: 중국조선족과 재일코리안을 중심으로.” 『民族文化論叢』 56, 329-357.
- 손미경. 2013. “문화플랫폼’으로서 도쿄·오사카 코리아타운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양영희. 2007. “이쿠노 마을 이야기.” 김남일 외. 『분단의 경계를 허무는 두 자이니치의 망향가』. 서울: 현실문화연구.
- 윤인진. 2004. 『코리안 디아스포라: 재외한인의 이주, 적응, 정체성』. 서울: 고려대학교 출판부.
- 이상봉. 2011. “오사카 조선시장의 공간정치: 글로벌화와 장소성의 변용.” 『한국민족문화』 41, 231-261.
- 이승호 외. 2013. “공간에서 장소로: 외로운 런던사람들의 런던 지도 다시 그리기.” 『영미연구』 29, 205-233.
- 이창익. 2014. “재일한국인 개념의 일고찰: 渡日의 역사성과 호칭을 통해.” 『大丘史學』 114, 2014.
- 이희숙. 2003. “재일 한인 축제를 통해서 본 장소의 정치.” 『한국지역지리학회지』 9(3), 248-261.
- 임승연 외. 2011. “오사카 한인타운의 장소성과 재일한인 정체성의 관계적 특성 연구.” 『로컬리티 인문학』 5, 87-123.

- 임영언. 2007. “재일한인 청소년의 민족정체성의 형성과정.” 『디아스포라연구』 1(2), 125-148.
- 임채완 외. 2006. 『재외한인과 글로벌 네트워크』. 서울: 한올아카데미.
- 전기호. 2003. 『일제시대 재일한국인 노동자계급의 상태와 전망』. 서울: 지식산업사.
- 정진성. 2012. “‘재일동포’ 호칭의 역사성과 현재성.” 『일본비평』 7, 258-287.
- Berry, J. W. 1997. “Immigration, acculturation and adaptation.” *Applied Psychology: An International Review* 46(1), 5-68.
- Berry, J. W. 2005. “Acculturation: Living successfully in two cultures.”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29, 697-712.
- Cohen, Robin. 1996. “Diaspora and the Nation-State: From Victims to Challengers.” *International Affairs* 72(3), 507-520.
- Cohen, Robin. 1997. *GLOBAL DIASPORAS: An Introduction*. Seattle: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IOM). 2013. *WORLD MIGRATION REPORT 2013: MIGRANT WELL-BEING AND DEVELOPMENT*. Geneva: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 Redfield, Robert, Ralph Linton, Melville J. Herskovits. 1936. “Memorandum for the Study of Acculturation.” *American Anthropologist* 38(1), 149-152.

● 투고일 : 2014. 10. 21 / 심사일 : 2014. 10. 22 / 게재확정일 : 2014. 11. 3

**Diasporic Acculturation and Mutual growth :
focused on Korean Japanese in Osaka**

Lim Chae Wan, Sun Bong Kyu (Chonnam National University)

The focus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aspects of acculturation of the diaspora in their host country after leaving their homeland and how they contribute to the growth of communities in their host country. Therefore, this research, which is specifically limited to the Korean diaspora living in Ikuno-ku, Osaka, Japan will examine their acculturation and how they coexist and develop in that process. The Osaka-Ikunoku Miyuki-dori Koreatown used to be a densely populated ethnic community where only Koreans in Japan (old-comers) lived together, but it now becomes a multicultural community where old-comers, new-comers, and Japanese live together. In addition, one of positive points is that Japan runs various programs for symbiosis so that migrants including Koreans in Japan can live proudly as members of their community. However, despite these multicultural symbiosis projects, it should be noted that the politics of discrimination and exclusion against Koreans in Japan is still prevailing in Japanese society.

The Korean diaspora in Japan inhabiting Osaka Ikuno-ku give a lot of implications to us who are living in the multiracial and multicultural era. Most of all, today's diaspora is not simply a member of the community but a positive actor who creates new energy that is necessary for the growth and development of the community. Besides, to realize a coexistence and symbiosis society, members of the community as well as governments and local governments should collect their common efforts. In this regard, the

unilateral acculturation should be avoided in the multiracial and multicultural era because it causes unnecessary conflicts, thereby exacerbating social chaos and costs. To this end, it should explore prototypes of varied different cultures scattered in communities and develop programs through which people can acknowledge and experience cultural differences via exchange between migrant cultures and the mainstream culture. The important thing is that we should not regard those projects just as one tourist product. However, community members should be equipped with an attitude toward participation and sharing. we should be aware of the fact that in the multiracial and multicultural era, the diaspora is not only for the outsiders but also for the indispensable existence for the mutual growth of the community.

〈Key words〉 Diaspora, Acculturation, Mutual growth, Korean Japanese, Miyuki-dori Koreatown